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 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 286-9206)  
<http://www.jthink.kr>

▪ 문의 : 새만금물환경·정책센터 장남정 연구위원  
(063-280-7162, 010-4729-3626)

▪ 담당실장 : 연구실장 이강진 연구위원  
(063-280-7141)

보도시점 : 2017년 8월 31부터

## 야생생물 보호관리 상시 협의체계 필요

야생생물 피해 연 18억원... 로드킬 방지, 철새관리 등 시급  
전북연구원, 야생생물 보호관리 강화 세부대책 제안

- 최근 천연기념물 로드킬, 철새 도래에 따른 질병 위협 등 야생생물 보호관리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야생생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.
- 전북연구원(원장 강현직)은 8월 31일 ‘인간과 야생생물의 공존을 위한 전라북도 야생생물 보호관리 강화 방안’ 정책브리프를 통해 최근 도내 야생생물 이슈를 분석하고 전략 및 세부대책을 제안했다.
- 장남정 연구위원(새만금물환경·정책센터)은 우선 ‘(가칭)전라북도 야생생물 보호관리 협의회’와 같은 상시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야생생물 보호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.
- 담당행정, 야생생물 유관기관, 전문가, 민간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포럼형태 협의회를 통해 이슈별 세부대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.
- 정책브리프는 전북에서 10년간 900여건의 로드킬이 있었다고 설명, 전국 25.9%의 비중을 차지하는 철새도래 개체수, 농작물과 전력시설 등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가 지난해 18억 64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.

- 정책브리프는 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‘야생생물 보호관리 기반 구축을 통한 건강한 생물다양성 보전’을 목적으로 멸종위기종 보호관리, 관련시설 확충 등 기반강화, 거버넌스의 3대 전략 15개 세부사업을 제안했다.
- 보호관리 전략 세부사업으로 ▲ 전라북도 야생생물 보호종 지정 및 보호 지역 확대, ▲ 생태 연결성 확보를 위한 생태 네트워크 구축, ▲ 안전관리 측면의 로드킬 관리를 강화하고, 야생생물 피해 저감을 위해 ▲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의 지속적 확대, ▲ 직간접적 야생생물 피해 방지사업 추진, ▲ 교란생물 관리사업 등을 제시하였으며,
- 기반강화 전략으로는 ▲ 멸종위기종 보호관리 및 전시시설 설치, ▲ 서식지외 보전기관 확대사업과,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▲ 국립생태원 연계사업, ▲ 야생생물 복원 및 브랜드 사업 등을 도출하였고,
- 거버넌스 전략으로는 ▲ 바이오블리츠 확대 추진, ▲ 전라북도 야생생물 보호관리 협의회 구성/운영,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▲ 야생생물 질병 신고체계 구축, ▲ 질병관리 네트워크 구축/운영, ▲ 조류독감 안전농장 시범사업 등을 제안하였다.